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몸 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우리 교사들.

또 1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공과 주제의 말씀이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자녀들에게 주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1시간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합당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찾으셔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이가 없느니라

18 Porque así dijo Jehová, que creó los cielos; él es Dios, el que formó la tierra, el que la hizo y la compuso; no la creó en vano, para que fuese habitada

la creó: Yo soy Jehová, y no hay otro.

오늘은 '사람창조'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 Entonces dijo Dios: Hagamos al hombre a nuestra imagen,conforme a nuestra semejanza; y señoree en los peces del mar, en las aves de los cielos, en las bestias, en toda la tierra, y en todo animal que se arrastra sobre la tierra.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 Y creó Dios al hombre a su imagen, a imagen de Dios lo creó; varón y hembra los creó.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은 그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 헛

되이 창조치 않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에요.

사람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사람. 우리가 그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19 Y te desposaré conmigo para siempre; te desposaré conmigo en justicia, juicio, benignidad y misericordia.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20 Y te desposaré conmigo en fidelidad, y conocerás a Jehová.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하실 때 어떻게 칭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할 때는 여자처럼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그 아내로서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결혼할 짝으로 그래서 그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같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곧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똑같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중매하는 중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중매한다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2 Porque os celo con celo de Dios; pues os he desposado con un solo esposo, para presentaros como una virgen pura a Cristo.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런 중매자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중매하는 사람들은 중매 잘해서 뭐 좀 돌아오는 게 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정결한 처녀가 되어 갈 것인가.

아마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장으로 들어오는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겁니

다.

뭐 속옷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옛것이 없고 다 깨끗하게.

뭐 글쎄요 여자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만은 뭐 결혼하기 전 얼마 전부터 뭐 피부마사지부터 시작해서 그러죠 머리도 잘 다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남편에게 나아올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라고 하는데

창세기 5장 1절에도 아담의 계보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 영이 있는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라는 거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이젠 마귀의 짝이 되어 버려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거에요.

자기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했던 것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재창조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3절에 밤 중에 예수님께 나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18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 Él, de su voluntad, nos hizo nacer por la palabra de verdad, para que seamos primicias de sus criaturas.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실패했던 게. 창세기에서 실패했던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주님은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의 그 새로운 창조, 거듭나는 일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주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주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몸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9절 말씀. 47절부터 49절까지.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7 El primer hombre es de la tierra, terrenal; el segundo hombre, que es el Señor, es del cielo.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8 Cual el terrenal, tales también los terrenales; y cual el celestial, tales también los celestiales.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 Y así como hemos traído la imagen del terrenal, traeremos también la imagen del celestial.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육체의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9절 뒤로는 주욱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변화가 될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처럼 우리도 바뀔 겁니다.

우리의 몸 또한. 몸 또한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주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은 그랬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예수님은 분명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 자국을 그리고 창 자국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볼 수 있었습니

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는 그러한 생선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의 형상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몸만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성품도 우리의 성품도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성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변해가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19 Hijitos míos, por quienes vuelvo a sufrir dolores de parto, hasta que Cristo sea formado en vosotros,

20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20 quisiera estar con vosotros ahora mismo y cambiar de tono, pues estoy perplejo en cuanto a vosotros.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 죄인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고

이제 영원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게 됐으나

우리의 몸은 아직 주님처럼 되지 못해서 우리의 성품 또한 주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하루 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가 수고해야할 수고가 남아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찐대

21 si en verdad le habéis oído, y habéis sido por él enseñados, conforme a la verdad que está en Jesús.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2En cuanto a la pasada manera de vivir, despojaos del viejo hombre, que está viciado conforme a los deseos engañosos,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3 y renovaos en el espíritu de vuestra mente,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 y vestíos del nuevo hombre,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계속해서 새사람으로 입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로 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으면 안되겠죠.

신분이 바뀌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죄 라는 옷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의 옷이 어울리는 겁니다.

의의 옷으로 그리고 진리의 옷으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런 공과 교육을 통해서 저는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나에게는 벗어야 될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변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본인이 또 스스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 내가 벗어야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거룩함을 옷 입어야 될 겁니다.

사도바울도 매일 죽노라 그랬는데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있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건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실패됐던 것을 다시 한 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도 계속되는 재창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무얼 벗어버릴랍니까?

선생님들이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는한은 우리 아이들도 벗을 것도 없고 새롭게 입을 거도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 빌립보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 Haced morir, pues, lo terrenal en vosotros: fornicación, impureza, pasiones

desordenadas, malos deseos y avaricia, que es idolatría;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 cosas por las cuales la ira de Dios viene sobre los hijos de desobediencia,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7 en las cuales vosotros también anduvisteis en otro tiempo cuando vivíais en ellas.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8 Pero ahora dejad también vosotros todas estas cosas: ira, enojo, malicia, blasfemia, palabras deshonestas de vuestra boca.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9 No mintáis los unos a los otros, habiéndoos despojado del viejo hombre con sus hechos,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10 y revestido del nuevo, el cual conforme a la imagen del que lo creó se va renovando hasta el conocimiento pleno,

여기에도 벗어버리라 8절에 그러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5절에는 땅이 있는 지체를 죽이라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도 벗어버리고 그 행위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으니.

그 다음엔 뭐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직에 있을 때 그 학교에, 학교에 교훈이 있었습니다.

반에는 급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지요.

그 교훈은 '날로 새로워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전 구원받기 이전에 그 교훈이 도대체 어떻게 뭐가 날로 새롭다는 말인지 그러나 거듭난 후에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많은 세포들이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것, 악에 대한 것, 땅에 있는 육신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주 이 공과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은 사람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된다면 아이들은 그 변화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입을 통해서 전파

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또 변화될 꺼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다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요.

그 변화가 있을 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고 그 때 생명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공부해봤는데.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였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짝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나 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몸도 주님의 영상처럼 변화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은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화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제 개인적으로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8 el cual también os confirmará hasta el fin, para que seáis irreprensibles en el dí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깐 정말 정결한 처녀로 흠 없이 아름다운 처녀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은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겨주는 분이 아니죠.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군대에 그런 말이 있죠.

안되면 될 때까지. 안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수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굶어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굶어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다 징계받아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이 염려했던 거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입혀줬습니다.

40년 동안 살았지만 옷이 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풍부한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원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을 하실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40년 후에 그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잡던 베드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돌아다녔던 베드로.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그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 곳에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곳을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리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은 주님은 반드시 그 곳에 다시 우리를 이끌고 그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무섭습니다.

왜? 내가 잘못되면, 실패하면 다시, 다시, 다시, 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은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끝까지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 없고 아름답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사람 창조' 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3 Para los santos que están en la tierra, Y para los íntegros, es toda mi complacencia.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도 딸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까 여기 판서를 해 놨었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싸울 때 담대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자매들도 있죠.

참 연약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장부처럼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에 관련된 것은 절대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1장 3절.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3 Y dijo Dios: Sea la luz; y fue la luz.

6절.

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6 Luego dijo Dios: Haya expansión en medio de las aguas, y separe las aguas de las aguas.

9절.

9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9 Dijo también Dios: Júntense las aguas que están debajo de los cielos en un lugar, y descúbrase lo seco. Y fue así.

자 모두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7 Entonces Jehová Dios formó al hombre del polvo de la tierra, y sopló en su nariz aliento de vida, y fue el hombre un ser viviente.

말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지으시고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 사람을 만드신 것은 말씀으로만 아니고 직접 만드셨어요.

또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직접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1 Y Jehová Dios hizo al hombre y a su mujer túnicas de pieles, y los vistió.

가죽옷을 지어 입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직접 지어서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다 큰 어른인데 왜 입혀주셨을까요?

죄를 가리우는 구원의 옷은 사람이 멋대로 입고 벗을 수 없는거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기억지 않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준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친히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럴까요?

모든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은 말씀으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5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5 ¿Se olvidará la mujer de lo que dio a luz, para dejar de compadecerse del hijo de su vientre? Aunque olvide ella, yo nunca me olvidaré de ti.

여인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즘 세상은 아이를 버리는 세상이에요. 부모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요한 것 준비물 잊어버리면 안되면은 손바닥에 적어 놓셨죠?

그것도 안 지워지는 걸로 적어놔야지 놀다보니깐 세수하고 씻다보니깐 지워져버렸어요.

다음날 준비물 안 가져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썼다가 아니고 새겼다.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5절.

5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5 Ahora pues, dice Jehová, el que me formó desde el vientre para ser su siervo, para hacer volver a él a Jacob y para congregarle a Israel (porque estimado seré en los ojos de Jehová, y el Dios mío será mi fuerza);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언변이 좋지 못하고 풍채도 좋지 못해서 숏다리에 배운 것도 없어요. 무식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세상 가운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육신의 부모들이 볼 때는 그 아이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낳아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 라는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된다면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오늘 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벗을 것은 벗어버리고 또 입을 것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지옥형벌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시지 않 우리의 몸까지 변화시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듸 볼 수 있도록 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앞에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변화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